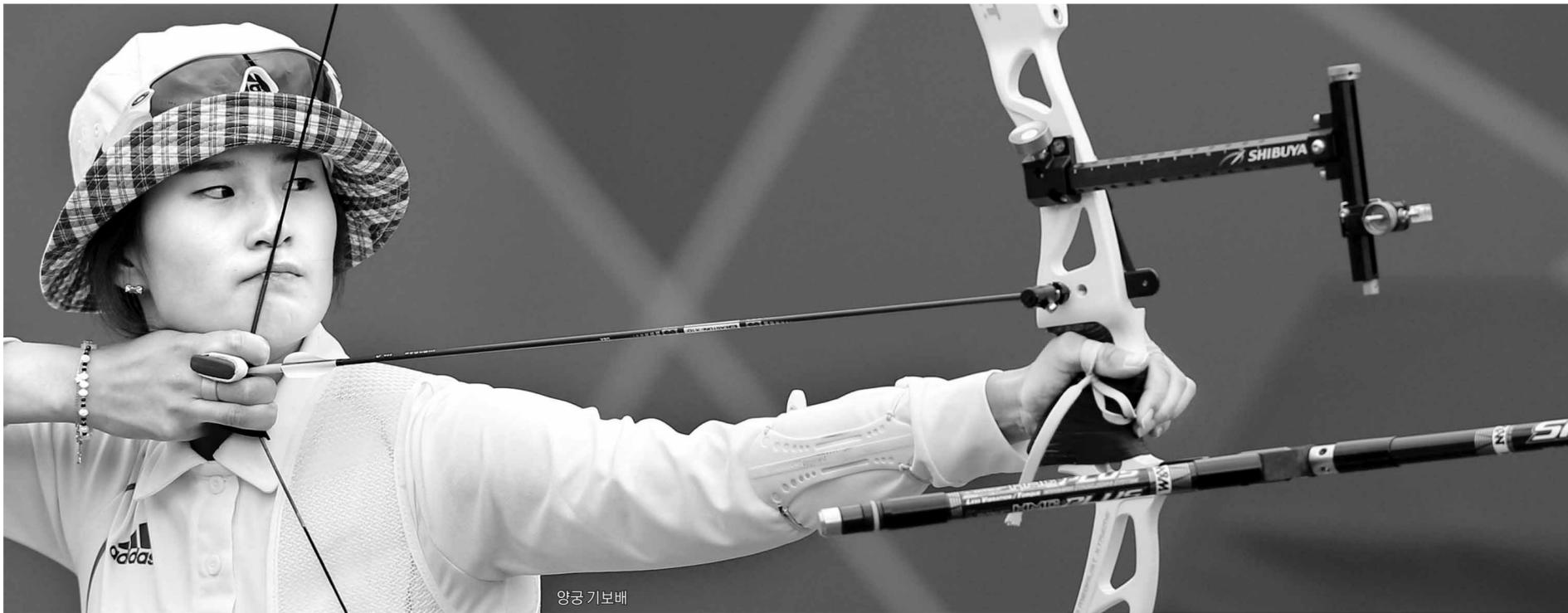


반짝반짝 스타들 광주서 '리우 꿈' 정조준

〈2016 리우올림픽〉



양궁 기보배



손연재·양학선·이용대·기보배·이특영·김성연... 내로라하는 스포츠스타들이다. 이들은 왜 광주를 주목하는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유니버시아드는 '2016 리우올림픽'으로 가는 도약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헬기 넘치는 기대주들이 '내일의 스타'를 꿈꾸며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광주 하계U대회는 2016 리우 올림픽으로 가는 도약대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육상 한정미·태권도 전채은 등 '유망주'

광주U대회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까? 광주U대회는 170여 개국의 스포츠 루키 1만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중 이미 스타가 된 선수도 다수 포함돼 있다. 광주U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손연재·양학선·기보배 등이다. 또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용대·김성연·이특영도 있다. 손연재를 빼면 모두 광주·전남이 배출한 걸출한 스타들이다.

광주 출신 양학선(한국체대)은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체조 도마에서 세상에 없는 자신만의 신기술 '양학선'(난도 6.4)으로 대한민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했다. 카잔 유니버시아드, 안트워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헬스트링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는 절치부심 끝에 10월 전국체전 4연패에 성공하거나 12월 일본에서 열린 도요타컵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부활했다. 최근에는 수원시청으로 보급자리를 잡고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됐다.

양학선은 "광주유니버시아드를 기다리고 있다. 고향인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고향팬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보배' 기보배(광주여대대학원)는 광주U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 복귀를 꿈꾸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전 정상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견인, 명실공히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신궁이 됐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어렵게 탈락해 태극마크를 반납했지만 다시 예전의 기량을 찾았다. 대통령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에 올랐고,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가볍게 통과, 태릉선수촌 복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기보배는 "2011년 중국 선전U대회에서 3관왕을 하며 얻은 자신감이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졌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좋은 성적으로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양궁의 단체전 5연패를 이끌었던 국가대표 이특영(조선대대학원)도 7월 광주에서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국내 양궁 사상 최연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을 지닌 이특영은 한 때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5연패의 주역으로 부활했다.

화순 출신 '셔플콧 황제' 이용대(경기대대학원)는 유니버시아드 2연패에 도전한다. 이용대는 지난해 협회의 미

숙한 대처 탓에 약물검사 파동을 겪으며 속앓이를 했다. 소명 끝에 어렵게 자격정지에서 벗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 단체전 금메달·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말 세계배드민턴연맹 슈퍼시리즈 파이널 남자복식에서 우승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는 광주U대회 참가를 위해 경기대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어깨로메지기'를 선보인 김성연(유도·조선대대학원)의 다음 목표는 광주U대회 우승이다. 그 다음은 브라질 리우올림픽 금메달이다. 김성연은 "올해 목표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우승이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내일의 스타'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한정미(육상·광주체고), 전채은(태권도·조선대), 조대권(골프·호남대), 공태현(골프·호남대) 등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배기람(체조·경희대), 한소리(체조·조선대), 이정환(펜싱·한국체육대), 박경(골프·동일정보고) 등도 세계무대 우승을 꿈꾸고 있다. 조선대 태권도 선수인 김영석·조성범·김미소·이수진·김유진(조선대대학원)도 유망주다.

김민균(육상·호남대대학원), 이성(육상·조선대대학원), 김지현(수영·조선대), 최유리(배드민턴·조선대) 등 국가대표 출신들과 김혜진(양궁·광주여대), 이종현(펜싱·한국체대), 김향은(펜싱·광주 서구청), 백수빈(골프·송일고) 등 상비군 출신들도 스타덤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인 류민재(수영·광주체고), 김도영(체조·조선대)과 동메달리스트 이명하(배드민턴·조선대)도 기대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도 김성연

오바마 농구·푸틴 삼보 U대회 선수 출신



오바마

푸틴

버락 오바마·블라드미르 푸틴·마이클 존슨,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이자 유니버시아드 선수 출신이다. 올해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는 어떤 걸출한 리더가 탄생할까 눈여겨볼 일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 재학시절 농구선수로 U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

학스포츠가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1979년 로스앤젤레스 욱시던탈 대학에 입학해 농구선수로 활약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정치동아리를 만들었고, 이후 그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정치가로 성장하는 내내, 대통령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학 재학시절 유니버시아드 삼보 챔피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통무술인 삼보를 포함한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2013 카잔 U대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니버시아드로 상징되는 대학스포츠가 승부와 기록의 경쟁을 넘어 체력과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재치, 나눔, 연대 등의 가치를 배우는 리더십 교육의 매개라는 사실을 두 사람의 경우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탄생시키는 산실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48%가 U대회 메달리

스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열약한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육상으로 일세를 풍미한 미국 육상선수 마이클 존슨,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인 래리 버드, 올림픽 사상 최다인 22개의 금메달을 딴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체조의 요정으로 불리며 사랑받았던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 등이 U대회가 배출한 세계적 스포츠 스타다.

한국의 스포츠스타들도 U대회가 등용문이었다.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마라톤)를 비롯해 '빙상의 여왕' 이상화(피겨스케이팅), 한국 프로농구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한 우지원(농구),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국인의 열정을 각인시킨 박찬호(야구) 등이 U대회를 통해 배출됐다. 또 세계적 스포츠스타이자 광주U대회 홍보대사인 체조의 양학선, 리듬체조의 손연재, 양궁의 기보배, 펜싱의 최은숙 역시 U대회 메달리스트들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